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5173 |
|----------|-------|

발의연월일 : 2022. 4. 8.

발 의 자 : 김상훈 · 강기윤 · 홍문표
송언석 · 정우택 · 송석준
박수영 · 이종성 · 박대출
이영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직할 경우 지급받는 공적연금 관련 일시금,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 퇴직소득에 대하여 근속연수, 환산급여 등을 고려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후 이에 따라 산출된 퇴직소득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하여 퇴직소득세를 징수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퇴직소득은 근로자가 직장을 퇴직하고 다음 인생을 대비할 때 중요한 자금이 되고 있는바,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한 근로자들이 퇴직 후 지급받는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재취업이나 창업 또는 은퇴 후 퇴직금으로 노후를 꾸려가가는 데 있어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공적연금 관련 일시금,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 등 퇴직소득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토록 함으로써 재취업이나 창업 또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 신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3항 본문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제1항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소득금액의 과세최저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22조(퇴직소득) ① ~ ④ (생략) <u><신설></u> | 제22조(퇴직소득)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제3항 본문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제1항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u> |
| ⑥ (생략) | ⑥ (현행과 같음) |